

러시아 대형화재 현장 복사열 방어장비

다량의 가연물의 연소로 화염과 함께 강력한 복사열이 발생하는 대형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을 위한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. 이와 관련하여 앞서 다량의 복사열 방어 장비로 독일 등 서유럽 소방의 수벽형성관창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,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개념의 복사열 방어장비를 소개한다.

대형화재현장의 강력한 복사열과 화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도 대원이 방수를 하며 진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소방서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.(사진제공 :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주 소방청 예방국 부국장 리코셰르 스토프 드미트리 겐나데비치)

이 장비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치 기관포 사수의 보호막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으며 소방차량 견인방식의 트레일러로 2륜의 소형차량이다. 바깥쪽에는 방수포가 있고 안쪽으로는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커플링이 있다. 또한 안쪽에 눈을 보호하면서 앞쪽을 살필 수 있는 점검구를 좌우로 두 개를 설치하였고 안쪽에서 방수포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도 두고 있다. 호스 연결커플링이 2구형으로 되어 있어 차량 2대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가압송수를 동시에 할 경우 방수거리와 방수량을 최대화하여 대형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

